

## 청주 拱北樓 題詠詩攷

李 東 宰\*

### < 目 次 >

- |                 |                |
|-----------------|----------------|
| I. 서론           | IV. 공북루 제영시 세계 |
| II. 청주 공북루 概觀   | V. 결론          |
| III. 拱北樓 題詠詩 현황 |                |

### < 국문 초록 >

본고는 충북의 도청 소재지인 청주의 문화사적 전통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청주읍성의 북문루였던 공북루의 연혁과 함께 이곳에서 지어진 제영시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청주 공북루는 고려 말인 1320년 尹繼宗에 의해 세워졌고, 1524년 沈彦光이 이곳에 걸려 있는 시판의 시를 次韻하여 시를 지은 이후 지은 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퇴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북루는 1667년 청주목사인 李暹에 의해 중수되었으며, 李夏坤 등이 이곳에서 시를 지은 것으로 보아 18세기 초반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청주 공북루 제영시는 1321년 최초로 權漢功이 지었고, 1362년 공민왕의 명령으로 李穡 등 26명의 문신들에 의해 26수의 응제시가 지어졌으며, 이후 고려 말 鄭樞, 成石璘, 조선 초기 韓尙質, 沈彦光, 18세기 초기 李玄祚 등에 의해 지어진 시 37수가 전한다.

시의 내용 중 응제시는 흥건적의 침입을 물리치고 나라를 재흥시킨 것이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교수 / leedj@kongju.ac.kr

왕의 덕화라고 칭송한 내용과 응제에 참여한 개인적인 영광을 드러낸 것이 주된 내용이고, 다른 시의 내용은 정치적 패배로 인한 나그네 신세나 지방관으로 부임하게 된 불편한 所懷, 청주의 승경 등이다.

청주 공북루의 누정 제영시는 공북루의 연혁과 고려 후기 청주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어져서 청주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찾는 일이 심화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청주, 공북루, 제영시, 공민왕, 응제시, 詩額

## I. 서론

주지하듯이 청주는 우리나라 내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곳으로 삼국시대부터 정치·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이다. 즉 통일신라에는 서원경이었고, 고려시대에는 양광도의 首府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충청도를 대표하는 牧의 하나였고, 지금은 충청북도의 도청소재지이다. 그러므로 청주에는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아문과 군사를 통제하는 병영 등의 공간을 지키는 읍성 등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있다.

특히 청주 공북루는 청주의 관아와 民居를 지키기 위한 읍성의 북문루로서 청주의 중요한 문화사적 가치가 있는 門樓이지만 實物은 물론 사진이나 도판, 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실정이다. 나아가 이곳에서 지은 제영시의 현황은 물론 시의 내용에 대한 소개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서 포탈에 청주 공북루를 검색하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시만 검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 공북루 제영시는 1321년 권한공의 최초로 지은 이후 35명의 문인에 의해 37가 지어졌다. 고려시대 작품은 홍건적의 2차 침입을 물리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연회를 베풀면서 지은 공민왕의 응제시가 26수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작품은 6명의 문인의 시 7수가 있다.

누정 제영시는 누정의 특성뿐만 아니라 누정을 매개로 한 당대의 인물들의 교유관계뿐만 아니라 통시적으로 각 정과의 유대관계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사적 자료가 된다. 그러므로 청주 공북루 제영시의 현황과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청주 공북루의 연혁을 밝히고 청주의 문화사적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청주 공북루 제영시에 대한 연구가 매우 소략하여, 민현구에 의해 고려 공민왕의 응제에 참여한 문신 관료군들의 성격을 파악한 역사 관련 논문 1편이 있고,<sup>1)</sup> 문학 논문으로는 응제에 참여한 田祿生과 李岳의 시를 인용하여 분석한 것이 전부이다.<sup>2)</sup>

따라서 본고는 청주읍성의 북쪽 문루인 공북루의 연혁을 알아보고, 이어 이곳에서 지어진 제영시의 현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북루 제영시의 시세계를 응제시를 중심으로는 왕화의 송찬과 참여의 영광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어 응제시가 아닌 시를 중심으로 旅路의 所懷로 묶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 Ⅱ. 청주 공북루 概觀

청주는 백제의 상당현 지역이었고, 통일신라 시기에는 서원소경이었으며, 고려시대에는 청주라는 지명으로 개명되고 양광도의 首府가 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충청도의 首府였다가 1602년 충청도의 감무를 공주로 옮겨 가면서 청주목의 치소로 축소되었으나,<sup>3)</sup> 일제강점기 이후 충청북도의 도

1) 민현구(2010). 참조.

2) 하정승(2015). 참조 ; 하정승(2017). 참조.

3) 『世宗實錄』卷149, 「地理志」, <清州牧>. “本百濟 上黨縣 新羅取之. 神文王五年 初置西原 小京 景德王改名西原京. 高麗 太祖二十三年庚子 改爲清州. 成宗二年癸未 初置十二牧 卽其一也. 十四年乙未 置十二州節度使 號清州全節軍. 顯宗三年壬子 廢節度使 改爲討撫使 九年戊午 定爲清州牧 爲八牧之一 本朝因之.”

청소재로 충북의 중심도시이다. 그러므로 청주는 오랜 세월 동안 지방 군현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와 행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지방의 거점 고을로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청주는 내륙의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지형적인 조건으로 읍성이 건립되었다. 읍성은 官衙와 民居를 둘러쌓은 성으로 주로 해안가에 쌓아서 왜구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쌓았으며, 현재도 충남 서산의 해미읍성과 전남 순천의 낙안읍성, 부산 동래의 동래읍성 등이 남아있다.

청주읍성은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685년 서원소경을 설치하고 689년 서원경성을 쌓았으며,<sup>4)</sup> 고려시대에는 나성을 개축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시기에 쌓은 성을 개수하여 유지하였으며, 조선 초기인 1487년에 석축으로 쌓은 것으로 보인다. 1910년 국권 피탈로 관찰부 대신 도청이 청주에 설치되었고, 1911년 4월 착공하여 1915년에 마친 시구 개정사업을 명분으로 하여 사방의 성벽을 헐어 그 돌을 이용하여 하수구를 만들면서 훼손되어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청주읍성은 『淸州邑誌』에 의하면, “그 높이가 8자이고, 둘레가 1,350보이며, 포루가 8곳인데 다만 두 곳이 남아있고, 성안에 우물이 13개가 있으며, 여장은 566타가 있고, 서문·남문·북문은 모두 아치식이며, 또한 문루가 있으나, 동문은 흥예를 틀지 않았고 문루도 없다.”<sup>5)</sup>라 하였으며, 전남 구례의 운조루에 남아 있는 「淸州邑城圖」를 통해 조선시대 후기의 읍성 내 건물의 배치와 민가의 존재 상황 등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4) 『三國史記』의 기록에 신라 685년(신문왕 5) 3월에 서원소경을 설치하고, 689년 閏 9월 26일에 서원경성을 쌓았던 기록이 있어 청주읍성의 전신은 아마도 통일신라가 九州五京制를 갖추던 신문왕대 특히 685년부터 689년까지에 걸쳐 축조되었다고 여겨진다.

5) 청주읍성(<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38909&cid=40942&categoryId=37154>) 두산백과사전 참조.(2020년 1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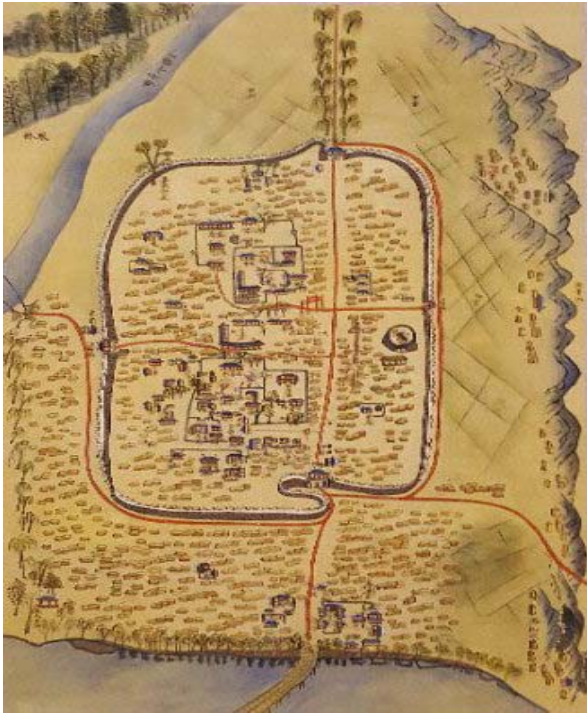


그림 1. 청주 읍성도

청주 공북루는 청주읍성의 북쪽 성루로 청주를 관통하는 무심천 변에 있었던 北門樓이다. 청주 공북루는 현재 실물은 물론 그림이나 사진, 그 초석이 남아있지 않아서 자세한 모습을 알 수가 없다. 다만 청주 공북루의 위치는 전남 구례의 운조루에 남아있는 그림 1.의 청주읍성도의 그림을 보면 읍성의 북문루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곳에서 지은 시문을 통해 지은 시기와 주관자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할 수가 있다.

먼저, 청주 공북루를 지은 시기를 알아보려고 한다. 청주 공북루가 지어진 시기와 이를 구축한 사람을 알려주는 단서는 고려 후기의 문신인 權漢功이 지은 「공북루」시이다.

다음의 시는 권한공이 지은 「拱北樓」 시이다.

拱北樓新構	공북루를 새로 지은 건
庚申十月初	경신년 10월 초
詩從權贊善	시는 권 찬선으로부터이고
功自尹尙書	공은 윤 상서부터로다
-후략- 6)	

이 시에 의하면, 공북루는 忠肅王 7년인 경신(1320)년에 청주 읍성의 북문 역할을 하는 문루로 새롭게 수축된 문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일을 벌인 인물이 尹상서이다. 윤상서는 충혜왕 禧妃의 아버지이고, 충정왕의 외할아버지인 尹繼宗(?~1346)으로 보인다.

청주 공북루는 조선 초기 성종 때 읍성을 石築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개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1465년 이승소가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와서 지은 「過淸州」 시를 지어 이곳에 시판을 걸었으며, 沈彦光이 1524년 충청도 도사로 부임하여 이곳에 올라서 권한공의 시에 차운하여 시를 지은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도 유지된 것으로 보이나 이후에는 이곳에서 지은 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퇴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북루는 1667년 청주목사인 李暹(1612~1673)이 중수하였고,<sup>7)</sup> 李玄祚가 1695년 이곳에 올라 시를 지었으며, 沈鎬가 1708년 공북루에 올라와 보니 중수하지 않아서 거의 퇴락하였다고 하였고,<sup>8)</sup> 申必淸(1647~1710)이 이곳에 올라 이승소의 시에 차운하여 시를 지었으며, 李夏坤(1677~1724)이

6) 白文寶, 『淡庵逸集』, 한국문집총간 3, 3~4면; 李荇,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5, 482면, <淸州牧>, 「拱北樓」. 시의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DB의 번역문을 전재하였으며, 내용의 일부는 필자의 견해에 의해 수정되었다. 이후 출전이 『新增東國輿地勝覽』인 시는 한국고전번역원의 DB의 번역문을 전재하였으며, 필자에 의해 일부 수정되었다.

7) 宋時烈, 『宋子大全』, 「淸州拱北樓記」, 한국문집총간 113, 37면. “樓之重建 在今上丁未 今侯寔成宗大王之聞孫李暹字退叔也. 是年七月 州民恩津宋時烈記.”

8) 沈鎬, 『樗村先生遺稿』, 「登西原拱北樓 題詠」, 한국문집총간 207, 15면. “有權漢功·李益齋·牧隱諸公詩 構既久而又不重修 荒落可慨 因其韻是成.”

「拱北樓前逢雪 在清州」시를 지은 것으로 보아 18세기 초반까지는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청주 공북루는 청주읍성의 북쪽 通門의 문루로 1320년 윤계중에 의해 건립된 이후 조선초기까지 유지되다가 퇴락하였으며, 이를 다시 청주 목사인 李暹이 1667년 중수하여 18세기 초기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 Ⅲ. 拱北樓 題詠詩 현황

청주 공북루 제영시는 1478년(성종 9) 성종의 명으로 서거정 등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우리나라 역대 시문선집인 『東文選』에 申葳의 「拱北樓」, 權漢功의 「題拱北樓」, 柳淑의 「清州拱北樓」 등 3수가 실려 있고, 1530년 李荇 등이 증보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청주목」 <누정 제영조>에 白文寶의 서문과 시, 26명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고려조의 문신인 鄭樞와 조선의 문인 7명의 시가 각 개인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아래의 표 1.은 한국학자료총서에서 시의 제목에 '拱北樓', 또는 '北樓'로 검색된 시 가운데 청주 공북루 제영시를 뽑아 작시의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청주 공북루 제영시 현황

연번	작자명	제목	형식	비고
1	白文寶	伏次拱北樓應製詩韻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淡庵逸集
2	權漢功	拱北樓	5언율시	동문선10, 신증동국여지승람, 淡庵逸集(附)
3	辛葳	拱北樓	5언율시	동문선9, 신증동국여지승람
4	元松壽	拱北樓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5	李穡	拱北樓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淡庵逸集(附), 牧隱藁
6	成士達	拱北樓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7	洪彦博	拱北樓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8 漢文古典研究 第41輯

연번	작자명	제목	형식	비고
8	李岳	拱北樓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9	李齊賢	拱北樓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益齋集(拾遺)
10	黃石奇	拱北樓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11	柳淑	拱北樓	5언율시	동문선10, 신증동국여지승람
12	金漢龍	拱北樓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13	禹吉生	拱北樓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14	李岡	拱北樓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15	廉興邦	拱北樓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16	田祿生	拱北樓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壑隱逸稿
17	崔龍	拱北樓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18	權鑄	拱北樓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19	朴仲美	拱北樓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20	金君鼎	拱北樓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21	華之元	拱北樓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22	禹玄寶	拱北樓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淡庵逸集(附)
23	李韜	拱北樓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24	韓昉	拱北樓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25	曹繼芳	拱北樓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26	許佺	拱北樓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27	田得良	拱北樓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28	李邦直	拱北樓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29	鄭樞	組甲 用權一齋清州拱北樓韻	5언율시	圓齋集
30	成石璘	次清州拱北樓板上韻	5언율시	獨谷集
31	韓尙質	拱北樓	5언율시	신증동국여지승람
32	沈彥光	又次拱北樓韻	5언율시	漁村集
33	李玄祚	清州拱北樓	5언율시	景淵堂集
34		次拱北樓板上韻	7언율시	景淵堂集
35	申必淸	次拱北樓板上李三灘承召韻	7언율시	竹軒文集
36	沈鎭	登西原拱北樓 題詠	5언율시	樗村先生遺稿
37	禹孝高	金谷齋舍用清州拱北樓韻	5언율시	鹿峰集

위의 표 1.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청주목」〈제영조〉에 수록되어 있는 시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후 각종 문집의 기록을 작자의 생몰 순서

로 정리한 표이다. 위의 표 1.에서 보여주듯이 청주 공북루 제영시는 36명의 문인에 의해 37수가 전하고 있다.

위의 표 1.에 제시한 37수의 시는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고려시대에 지어진 시가 30명의 문인에 의해 30수이고, 조선시대에 지어진 시는 6명의 문인에 의해 7수이다. 또한 작시의 배경에 따라 나누면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권한공과 신천의 시 등 2수는 순수한 공북루 제영이고, 백문보의 시와 원송수 이하 이방직에 이르는 25명 문인의 26수는 공민왕의 명령에 의해 지어진 응제시이며, 鄭樞에서 禹孝高 등에 이르기까지 8명의 문인의 9수는 다시 순수한 공북루 제영시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록에서 최초의 청주 공북루 제영시는 권한공이 1321년에 지은 「공북루」시이다. 權漢功(?~1349)은 忠宣王의 최측근 인물로 충선왕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여 아들인 忠肅王에 왕위를 물려주고 원나라에 있으면서 국내 정치에 간섭을 하여 틈이 벌어지자, 그는 정권의 중심에서 밀리고 유배를 당하여 楊廣道[충청도]를 전전하다가 청주를 지나며 공북루에 올라 이 시를 지었다.<sup>9)</sup>

辛葢(?~1339)의 시는 그에 대한 자세한 이력을 알 수 없어서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나, 그가 관동의 안찰사로 나갔다는 기록과 『동문선』에 실려 있는 시를 보면 통천을 출발하여 삼척, 평해 등을 거쳐 안동을 경유하여 청주에 이르러 공북루에 올라 권한공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로 보인다.<sup>10)</sup>

백문보의 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그가 지은 서문과 함께 맨 앞에 배치되어 있으나, 이 시는 공민왕과 함께 직접 공북루에 올라서 응제한 시가 아니고, 추후에 柳淑의 부탁으로 뒤에 서문과 함께 차운하여 지은

9) II장에서 인용한 권한공의 시의 미련에 “머물자니 해가 지려는데, 산 빛이 바로 나를 시름케 하구나.(留連日將暮, 山色政愁予)”라고 읊은 것은 작자 자신이 중앙 권력에서 밀려 지방을 전전하는 나그네의 심회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 『동문선』에 강원도 통천의 叢石亭, 삼척의 臥水木橋, 평해의 繞郭長川如故里, 안동의 曠湖樓 등을 읊은 시가 전한다.

응제시이므로,<sup>11)</sup> 그의 문집인 『淡庵逸集』에 시제를 「伏次拱北樓應製詩韻」이라고 붙였다.

元松壽, 李穡, 成士達, 洪彥博, 李岳, 李齊賢, 黃石奇, 柳叔, 金漢龍, 禹吉生, 李岡, 廉興邦, 田祿生, 崔龍, 權鑄, 朴仲美, 金君鼎, 華之元, 禹玄寶, 李靱, 韓昉, 曹繼芳, 許佺, 田得良, 李邦直 등 25명의 시는 공민왕이 공북루에懸額되어 있는 권한공의 시를 보고 차운하여 지으라는 명령으로 지은 응제시이다.

공민왕은 1361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수도인 개경을 떠나 복주[안동]으로 피난하였다가 홍건적을 물리치고 개경이 수복되자 1362년 행궁을 청주로 옮기고 元나라에 賀正과 賀千秋節을 위한 사신을 보내며 拜表儀式을 거행한 후 공북루에 올라 문신들에게 명령하여 시를 짓게 하였다.

공민왕의 응제에 참여한 문인들의 신분을 살펴보면, 백문보는 당시 59세로 密直提學으로 이제현의 제자였고, 홍언박은 우정승이었으며, 이암은 左侍中이었고, 이제현은 門下侍中이었으며, 유숙은 知都僉議, 황석기는 門下平章事를 역임한 고위 원로급 문신이었다. 원송수, 이색, 성사달, 김한룡, 우길생, 허전 등은 尙書와 대언 등으로 왕의 지근거리에서 정치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 이강, 염홍방, 전녹생, 권주, 박중미, 김군정, 우형보, 이인 등은 정치와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낭관급 문신들이었다.<sup>12)</sup> 특히 황석기와 화지원은 중국인으로 공민왕이 원나라에 質子生活할 때부터 친분이 있어서 고려에 귀화하여 고위직에 오른 인물이다.<sup>13)</sup>

11) 白文寶, 『淡庵逸集』, 「伏次拱北樓應製詩韻 并序」, 한국문집총간 17, 10면. “歲在辛丑 宮駕遷自福而向行駐淸州. 壬寅秋九月十九日 上率群臣 拜賀正表于郊 因御州之拱北樓 覽一齋權漢功舊題五言句. … 文寶時適承命如京 歆聞引頸 自以不獲親盛事爲恨 及時承召 竊嘗追和續尾亦以爲幸. 而州伯金君成甲 以柳思庵之言屬之曰 命製詩成而將鏤板 不可無序 文寶辭以無文而幸其傳不朽 遂操筆而拜稽首.”

12) 민현구(2010), 252~268면. 참조.

13) 李宜顯, 『陶谷集』, 「高麗 檜山府院君 恭禧 黃公墓表」, 한국문집총간 464, 190면. “公諱石奇 中朝人也. 高麗 忠肅王時 從公主東來 以勞封昌原 子孫仍貫焉. 公在忠惠朝 以知中事策元勳 圖形壁上. 後爲知密直 都僉議參理 檜山府院君. 紅賊之亂 恭愍南幸 公與衣裳執鞭以從. 及還錄功 父子並列雲臺 迭爲亞相 一世薨之. 公有風流文雅 七老會詩一絕 拱北樓和御製一律 具載諸書至今傳誦.”

고려말 문인인 鄭樞(1333~1382)의 시는 그가 1366년 李存禧 등과 함께 辛旽의 죄를 極言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李穡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고 東萊縣令으로 좌천되어 갈 때 청주를 지나며, 공북루에 현액되어 있는 권한공의 시를 차운하여 자신의 所懷를 드러낸 시이다.<sup>14)</sup> 또한 고려말 조선초기의 문인인 成石璘의 시는 그가 1388년 양광 도관찰출척사로 청주에 부임하여 공북루 시판의 시를 차운하여 청주의 경치와 여로의 所懷를 읊은 시이다.<sup>15)</sup>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인이었던 韓尙質 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청주목」 <승경>조에 앞에 언급한 권한공과 신천의 시, 26명의 응제시 뒤에 수록되어 있어서 응제시로 오해받을 수 있으나, 이 시는 그가 조선이 건국이 된 이후인 1393년 9월 楊廣道觀察黜陟使로 청주에 부임하여 금의환향한 감회를 드러낸 시이다.<sup>16)</sup>

沈彦光의 시는 그가 1524년 충청도 도사로 부임하여 공북루에 올라 현액되어 있는 권한공의 시를 차운하여 봄철 청주의 풍경을 읊은 시이고,<sup>17)</sup> 이현조의 시는 그가 1694년 갑술환국으로 정권이 바뀌자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갔다가 1695년 봄 淸風郡守로 있는 從兄 李玄錫과 함께 俗離山을 유람하기 위해 청주를 들러 나그네의 애수를 드러낸 「淸州拱北樓」시<sup>18)</sup>와 공북루에 시판으로 걸려있는 李承召의 「過淸州」시<sup>19)</sup>를 차운하여 봄철 청

- 14) 鄭樞, 『圓齋先生文稿』, 「組甲 用權一齋淸州拱北樓韻」, 한국문집총간 5, 189면. “組甲攻城後 鑿輿返旆初. 風塵三尺劍 歲月五車書. 寒日低荒野 孤雲度大虛. 吾謀適不用 腹負於予.”
- 15) 成石璘, 『獨谷先生集』, 「次淸州拱北樓板上韻」, 한국문집총간 6, 75면. “授鉞淸秋晚 憑欄仲夏初. 詩從山綠就 筆點露華書. 樹榭圍淸晝 雲峯滿大虛. 登臨雖信美 愁歎仍仇予.”
- 16) 「공북루」, 사신으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조선이 개국한 초기이다. 임금은 성지(聖旨)를 맞이하고, 부모(父老)들은 첩서(箋書)를 하례하도다. 길에 떠들 썩 풍악을 잡고, 깃발은 하늘을 덮었구나. 이런 것이 금의환향이라는 것, 그 영광 누가 나인 줄 알리. (李荇, 『新曾東國輿地勝覽』 卷15, 484면, <淸州牧>, 「拱北樓」, “奉使還鄉日 朝臨開國初. 君王迎聖旨 父老賀僉書. 鐘鼓喧周道 旌旗蔽大虛. 由來稱畫錦 榮幸孰知予.”)
- 17) 沈彦光, 『漁村集』, 「又次拱北樓韻」, 한국문집총간 24, 125면. “信馬西原路 春城麗景初. 桑麻新雨露 風俗舊詩書. 否往還成泰 盈來本白虛. 當時諸屨從 探勝孰如余.”
- 18) 李玄祚, 『景淵堂先生詩集』, 「淸州拱北樓」, 한국문집총간 168, 411면. “踏遍湖西路 來登拱北樓. 平原聊極日 長日可忘憂. 歲暮風霜苦 天寒鼓角愁. 吾將喚從事 憑作醉鄉遊.”
- 19) 李承召, 『三灘集』, 「過淸州」, 한국문집총간 11, 408면. “東風微雨洒郊原 草色遙看入燒痕. 山館日暉花意動 野溪水泮水流渾. 牧童牛背吹蘆管 遊女田頭采澗蓀. 信馬行吟驚物候 故園迢

주 지방의 모습과 나그네의 애수를 드러낸 「次拱北樓板上韻」 시이다.<sup>20)</sup>

申必淸의 시는 李承召의 「過淸州」시를 차운하여 나그네의 애수를 드러낸 시이고,<sup>21)</sup> 沈鎔의 시는 그가 1708년 봄 백부인 沈齊賢이 수령으로 있는 槐山 등 충청도 일대를 여행하며 청주에 들러 공북루에 올라서 권한공의 시를 차운하여 경치를 읊은 시이며,<sup>22)</sup> 禹孝高의 시는 공북루에 올라 시판의 시를 보고 지은 시가 아니라, 金舍用의 시를 차운하여 무너진 청주읍성에서의 감회를 드러낸 시이다.<sup>23)</sup>

청주 공북루 제영시의 형식적 특징을 살펴본다. 청주 공북루 제영시 37수의 형식은 5언율시가 35수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현조의 「淸州拱北樓」시를 제외한 나머지 34수가 최초의 공북루 제영시인 권한공의 시를 차운하여 지었기 때문이다. 또한 7언율시는 이현조의 「次拱北樓板上韻」시 1수와 신필청의 「次拱北樓板上李三灘承召韻」시 1수 등 2수는 7언율시인 이승소의 「過淸州」시 차운하였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주 공북루 제영시는 고려 후기에 지어진 시가 30수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조선시대에는 7수 밖에 지어지지 않았다. 이는 청주 공북루가 강산이 조화를 이루는 두드러진 승경의 공간이 아니었고, 문관이 근무하는 公廨보다는 읍성의 북문으로 통문과 방어의 기능으로만 주로 사용하였으며, 충청도의 首府가 공주였기 때문에 문신들이 주로 공주에 찾아오거나 머물렀기 때문이다. 또한 영남으로 통하는 교통로가 육

遺黯銷魂。”

20) 李玄祚, 『景淵堂先生詩集』, 「次拱北樓板上韻」, 한국문집총간 168, 411면. “高樓縹緲壓平原 客駐征驂繫樹根. 草意暗穿殘雪動 溪流重閣斷冰渾. 村童帶斧尋山藥 野女攜筐采水蘋. 收拾風光娛耳目 故園無復有歸魂.”

21) 申必淸, 『竹軒文集』, 「次拱北樓板上李三灘承召韻」, 305면. “□□□馬出西原 拱北樓前月一痕. 萌蘗牛山憐夜氣 游□□□覺春暉. 壘頭雨過青靑麥 江口風輕射采蘋. 日下長安何處是 不堪回首黯銷魂.”

22) 沈鎔, 『樗村先生遺稿』, 「登西原拱北樓 題詠」, 한국문집총간 207, 15면. “王粲春遊倦 登樓落日初. 手拈薇上雨 塵拂壁間書. 地得古人擅 樓因懶守虛. 仍將貂尾續 吟罷却慙余.”

23) 禹孝高, 『鹿峰集』, 「金谷齋舍用淸州拱北樓韻」, 48면. “昔我丹陽白 遯荒此卜居. 山河繚覆後 薇麥諫嘆初. 歲久林樾老 風濤廟貌虛. 展拜多興感 遺芬尚襲余.”

로보다는 수로를 이용하여 한강 광나루에서 충주에 이르고, 다시 육로로 조령을 거쳐 문경으로 가서 다시 상주에서 낙동강 수로를 이용하였고, 호남로는 천안을 거쳐 공주를 경유하였기 때문이다.

#### IV. 공북루 제영시 세계

누정 제영시는 누정 주변경관의 묘사와 여기에 더하여 자신의 심회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러므로 누정 제영시는 그 누정의 성격이 무엇인가가 시의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sup>24)</sup>

앞 장에서 진술하였듯이, 청주 공북루는 청주 읍성의 북쪽 문루로서 고려부터 18세기 초까지 유지되었으나 문인 관료들의 집무공간인 公廨에 딸린 공간이 아니었고 또한 경치가 아름다운 승경의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영시가 생각보다 많이 지어지지 않았다. 다만 고려 말기 공민왕이 흥건적의 2차 침입으로 잠시 주필할 때, 흥건적을 물리치고 원나라에 배표의식을 거행하면서 응제한 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응제시는 기본적으로 왕의 명령에 의해 지어진 시이므로 시의 내용이 왕화의 송찬과 이에 참여한 영광이 주된 내용이지만 작자 개인의 세계관과 지향, 신분적 위상에 따라 차이점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응제시를 중심으로는 첫째, 王化의 송찬, 둘째, 參與의 榮光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어 응제시가 아닌 시 가운데 일부 시를 '旅路의 所懷'로 묶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王化의 송찬한 시를 살펴본다. 이 시는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찬양하고 흥건적의 침입을 물리쳐서 나라를 재흥시킨 것이 왕의 덕화라는 것을 칭송한 시이다. 응제시 26수 가운데 공민왕의 덕화를 칭송한 시는 유숙, 이색, 이방직, 전득량, 김군정, 화지원, 이인, 허전 등의 시에서 나타

24) 조용호(2011), 509~510면. 참조.

난다.

다음의 시는 柳淑의 「拱北樓」 시이다.

北樓陪賞日	북루에서 모시고 노는 날
東國中興初	동국의 중흥을 처음으로 보았네
勝事將傳示	훌륭한 일을 장차 후세에 전하려고
新詩強自書	새 시를 굳이 스스로 쓰네
旌旄森滿路	깃발은 길 그득히 늘어섰고
袞黻迴臨虛	곤룡포는 높이 공중에 임하셨네
此地雖云樂	이 땅이 비록 즐겁다고는 하나
松山苦侯予	송악산이 우리를 고대하고 있네 <sup>25)</sup>

시의 전반부는 공민왕이 1362년 9월 17일 홍건적의 2차 침입을 물리친 공을 알리며 원나라와의 갈등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배표의식을 거행하고, 문관들을 대동하고 행궁인 청주읍성의 공북루에 올라와서 문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응제를 명하는 장면이다.

고려는 공민왕 5년 反元정책을 통해 자주권을 되찾고, 元과는 형식적인 조공관계를 유지하며 겨우 사신만 왕래하는 형국을 이루었다. 그러나 고려는 홍건적이 침입하여 큰 타격을 입히자 홍건적의 침입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원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홍건적의 침입을 물리친 후 元에 충성을 다짐하는 배표의식을 거행하고 폐지하였던 征東行省을 다시 설치하였다. 또한 고려는 무신의 난 이후 원나라의 지배와 홍건적의 침입 등으로 인해 문신들을 우대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공민왕은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유학으로 학문적 자질을 갖춘 신진관료들을 우대하여 개혁정책에 적극 가담시켰다. 이에 柳淑은 공민왕이 가장 신임하는 실력자로서 이 詩會를 기획하여 문신들의 사기를 북돋

25) 徐居正 외, 『東文選』, 219면, 「淸州 拱北樓」; 李荇,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5, 483면, <淸州 牧>, 「拱北樓」.

아주어 이들로부터 충성과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sup>26)</sup>

시의 후반부는 공민왕이 공복루에 임하는 장면과 하루 빨리 國都인 개경으로 돌아가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개혁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작자는 “이 땅이 비록 즐겁다고는 하나, 송악산이 우리를 고대하고 있네.”라고 하여, 하루라도 빨리 환도하여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심을 달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즉 백성들이 흥건적의 침입으로 인해 좌절된 개혁정책을 다시 추진하여 원나라 황실에 기대어 권력과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附元輩와 權奸들을 축출하고 도탄에 빠진 자신들을 구하라는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의지이다.

다음의 시는 신유학으로 무장한 李穡이 代言으로 공민왕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 지은 시이다.

鸞輿清曉動	임금님 수레 새벽에 움직이니
文物太平初	문물이 처음으로 태평해졌네.
樓迴瞻天近	누각은 아득히 높아 하늘 보기 가깝고
詩成奉勅書	시를 지어 분부 받드네.
山光生悅懌	산 빛에 기쁨이 생기고
秋氣集冲虛	가을 기운이 하늘에 모였네.
他日南巡記	훗날 남쪽 순행 기억하시면
含香亦有子	머금은 향이 나에게도 있으리. <sup>27)</sup>

이 시를 지은 이색은 주지하듯이 원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와 공민왕 2년 과거에 장원급제하였고, 이듬해 元의 制科에도 합격하여 翰林院 관직에 제수되기도 하였다. 그는 공민왕을 개혁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여 轍 등을 숙청하고 反元정책을 펼칠 때에는 時政八事를 올려 개혁안을 제

26) 민현구(2010), 252~26면. 참조.

27) 白文寶, 『淡庵逸集』, 「伏次拱北樓應製詩韻」, 한국문집총간 3, 305면 ; 李荇,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5, 「淸州牧」, 「拱北樓」, 482면.

시하였으며, 친원과 權貴의 비위에 어긋나는 諫言을 올리기도 했었다.

이 시의 전반부는 공민왕이 문인들을 대동하고 공북루에 올라 응제시를 짓고 이어 문과 시험을 실시한 것에 대한 칭송이다. 작자가 “문물이 처음으로 태평해 졌네.”라고 칭송한 것은 공민왕이 개혁정치를 시행하여 작자 자신과 같은 신유학으로 정치적 경륜을 갖춘 인물들을 등용하여 구습을 혁파하는 정치를 단행한 시초를 연 것을 찬양한 것이다.

이어 시의 후반부는 공북루 응제에 참여한 자신의 기분과 미래에 대한 기대이다. 임금으로부터 眷遇를 받은 작자의 눈에는 흥건적의 2차 침입으로 인해 집을 떠난 나그네 신세인데도 가을 산하가 아름답게 보이고 기쁨이 충만해 있다.

이러한 공민왕의 치적에 대한 송찬은 다음의 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시는 禹吉生의 시이다.

扈從登樓日	임금 모시고 누대에 오른 날
淒涼雨霽初	처량한 비 처음 개었네.
君王來送表	임금이 와서 표문을 보내고,
寇賊聘降書	도적은 항복의 문서를 보내왔네.
景晏山如畫	저물 녘 산은 그림 같고
秋深水似虛	가을은 깊어 물은 허공 같도다.
南州雖信美	남녘 고을이 참으로 아름답기는 하나
悵望轉傷予	하염없이 바라보니, 점점 속상해지네. <sup>28)</sup>

시의 수련은 공민왕이 1362년 9월 19일 원나라의 황제에게 배표의식을 거행하고 문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공북루에 올라 시회를 개최한 날의 분위기이다. 首聯의 ‘처량한 비가 처음 개었다’라는 표현은 당시 청주읍성의 날씨이지만 重義로 읽힌다. 즉 ‘처량한 비’는 ‘흥건적의 2차 침입으로 인해 국도인 개경이 함락을 당하여 조정이 안동으로 피난한 상황’이며, ‘개었다’라는 것은 흥건적을 물리치고 개경을 수복하여 머지않아서 개경으로 돌

28) 李衍, 『新繪東國輿地勝覽』 卷15, <淸州牧>, 「拱北樓」, 482~483면.

아갈 수 있다는 공민왕을 비롯한 신료들의 '희망찬 분위기'로 읽힌다. 즉 홍건적의 2차 침입으로 인해 안동으로 몽진했던 공민왕과 호종하던 작자는 홍건적을 물리쳤다는 소식에 머지않아 개경으로 돌아갈 희망이 생긴 것이다.

시의 함련은 공북루에서 거행한 배표의식의 장면이다. 기실 공민왕 10년(1361) 10월 홍건적이 2차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 당하자 왕은 안동으로 피난하였으며, 고려군은 홍건적에게 반격을 가해 3개월 만에 개경을 수복하였으나 공민왕은 곧바로 개경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상주에 머물다가 다시 8월 20일 청주의 행궁에 머물고 있었다. 이때 원나라 遼陽行省으로부터 홍건적의 남은 무리들을 모두 물리쳤다는 소식과 왕에게 내리는 원나라 황제의 衣酒를 보내왔다.<sup>29)</sup> 이에 공민왕은 개혁정책으로 원나라와의 소원한 관계를 청산하고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元나라에 고개를 숙여 충성을 맹세하는 배표의식을 거행한 것이다.

시의 후반부는 작자가 느끼는 공북루의 분위기와 심정이다. 작자의 눈에는 홍건적의 2차 침입을 물리쳤고, 원나라와의 관계도 회복되어 한결 가벼워진 정세로 인해 늦가을 풍경이 아름답게 다가온다. 그러나 여전히 홍건적의 2차 침입으로 인해 파괴된 도성이 복구되지 못해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속상하기만 하다. 여기에서 '속상함'은 단순히 작자가 처자가 살고 있는 개경으로 돌아가지 못한 속상함보다는 공민왕을 보좌하여 국정에 참여한 신하로서 홍건적의 침입을 미연에 막지 못하여 국가가 환난에 처하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한 것에 대한 悔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왕화의 송찬을 드러낸 시는 다음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시는 공민왕의 知遇를 입고 개혁정치에 일조를 한 田祿生의 시이다.

一人登眺日  
萬物喜瞻初  
美景誰能賦

임금께서 이 누대에 올라 바라보시던 날  
만물을 처음으로 기쁘게 우러러 보셨네.  
이 아름다운 광경 뉘 능히 읊을 수 있으리

29) 민현구(2010), 246면 참조.

荒詞不用書	거친 글 숨씨론 표현할 길이 없네.
面南顏甚瀟	남면하신 옥안(玉顏) 가깝기도 하거니
拱北意無虛	북쪽 향해 절하는 뜻은 헛되지 않겠지
寓目山河秀	눈길 닿는 곳마다 산수는 빼어났고
雲烟亦媚予	구름 안개가 또한 나를 반기네. <sup>30)</sup>

田祿生은 鹽鐵別監의 폐단과 倭寇防禦態勢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듯이 개혁정책을 적극 지지한 문신으로 지위는 낮았으나 공민왕의 知遇를 입어 시회에 참여하여 이 시를 지었다.

시의 전반부는 공민왕이 공북루에 문신들을 대동하고 올라와서 북쪽으로 개경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모습이다. 공민왕이 청주 공북루에 오른 1362년 9월 19일은 홍건적의 2차 침입으로 개경을 버리고 몽진한지 10개월이 지난 뒤이고, 적을 물리친 지 7개월이 지난 뒤이다. 공민왕은 홍건적의 2차 침입과 원과의 개혁정책으로 인한 갈등 등 外患과 이후 三元帥 숙청사건,<sup>31)</sup> 전쟁으로 인한 백성들의 流離 등으로 인해 정치적 곤경에 처해있었다. 그러나 청주에 머물 때에는 外患인 홍건적의 2차 침입을 물리치고 국도인 개경을 회복하였고, 원나라와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되어 가고 있으며, 戰功의 갈등으로 야기된 삼원수 숙청사건도 해결되어 오랜만에 뒤 찾은 평화로운 시기였다.

시의 후반부는 배표의식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작자 자신의 기대이다. 홍건적의 2차 침입으로 인해 어렵게 다시 회복한 원나라와의 우호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국정이 원만히 잘 해결되어 가는 현실에 비록 도성을 떠난 나그네 신세이지만 청주의 산하는 아름답게 닿아온다.

이처럼 응제시 26수 가운데 공민왕의 개혁정책의 정당성, 독자성, 혹은

30) 李荇,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5, <淸州牧>, 「拱北樓」, 484면.

31) 金鋪이 1361년 鄭世雲·安祐 등이 홍건적의 2차 침입을 격퇴하여 공을 세우자, 이를 시기하여 1362년 공민왕의 가짜 편지를 써서 안우와 이방실로 하여금 정세운 장군을 죽이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시 主將을 죽였다는 죄를 씌워 안우마저 죽였고 이어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김립, 이방실, 김득배를 모두 죽인 사건을 말한다.

자주성 등을 칭송한 시를 지은 문신들은 李穡 등 주로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한 신진관료로서 공민왕의 개혁정책에 적극 가담한 인물들에 의해 지어졌다.

둘째, 참여의 영광에 대해 살펴본다. 응제에 참여한 영광의 정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는 원송수, 홍언박, 홍사달, 우현보, 이방직, 김한룡 등의 시이다.

다음의 시는 당시 知申事로 공민왕의 최측근에서 모신 元松壽의 시이다.

絕景登樓處	경치 좋은 이 누대에 올라
清辰應製初	맑은 날 처음으로 응제하네.
喜承今日寵	오늘의 총애 기꺼이 받으나
慚繼古人書	옛 사람의 글을 잇기 부끄럽구나.
路豁南來直	길은 남녘으로 곧바로 뻗었는데,
山遙北眺虛	산이 멀어 북녘은 훤히 비어 있구나.
禮泉行樂好	禮泉의 행락도 좋으나
榮華莫如予	영광이 나 같은 이 없도다. <sup>32)</sup>

이 시는 원송수가 지신사로서 공민왕의 명령을 받아 다른 문신들에게 전달하면서 자신도 이에 참여하여 지은 시이다. 시의 수련은 응제에 참여한 사실에 대한 설명이다. 작자가 공북루에 오른 날이 9월 19일 늦가을 쾌청한 날이었다. 함련은 임금의 총애를 받아 응제에 참여한 영광과 시를 잘 지어야 한다는 부담감의 토로이다.

시의 경련은 공북루에 올라와서 바라본 경치이다. II장에서 도관으로 제시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공북루의 남쪽 읍성 안에는 북쪽 공북루에서 남쪽의 남문에 이르기까지 길이 직선으로 시원하게 뚫려 있고, 북쪽에는 가을걷이를 끝낸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 시의 미련은 응제 시회에 참석한 개인적인 영광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자신이 응제 시회에 참여하여 시를 짓은 것은 권한공이 임금의 미움을 받아 유배자 신세가 되어 홀로 공북루에

32) 李衍, 『新繪東國輿地勝覽』 卷15, <淸州牧>, 「拱北樓」, 482면.

올라 행락을 즐긴 것보다 더 아름다운 盛事라고 자부하고 있다.

이처럼 응제 시회에 참여한 영광을 드러낸 시는 다음의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시는 우승상으로 임금을 최측근에서 모신 洪彦博의 시이다.

鳳輦東還日	임금님 모신 수레 동쪽에서 돌아오던 날
金風木落初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지기 시작하였네.
江山留我住	강산은 나더러 머물러 살라 하고
詩句借人書	시구는 남의 글을 빌려서 썼도다.
路直朝南遠	길은 곧아 멀리 남녘에서 조회하고
樓高拱北虛	누각은 높아 허공의 북두성을 향하네.
老來尙侍從	늙어서도 여전히 임금 모시니
壁上莫忘予	벽 위에 적은 내 이름 잊지 말라. <sup>33)</sup>

시의 앞부분은 공민왕이 개최한 공복루 시회의 장면이다. 시회는 1362년 9월 19일 임금이 공복루에 문신들을 대동하고 친림하여 개최하였다. 시회를 연 시기가 늦가을이라 낙엽이 지기 시작하고 날씨가 쌀쌀하였지만 국도인 개경이 회복되었고 三元帥 살해 사건 등이 원만히 해결되어 정국이 안정되어 가기 시작하자 그동안 소외되어온 문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시회였다.

시의 후반부는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민왕의 총애를 받으며 시종의 영광을 받고 있는 작자 자신의 모습이다. 작자는 원로의 신분으로 문신을 위로하기 위한 시회에 참여한 자신을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다. 기실 洪彦博은 공민왕의 외사촌형으로 首相인 右政丞이었다. 그는 공민왕이 質子로 원에 머물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즉위 이후 奇轍을 제거하고 反元的 개혁정치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 같은 응제 시회에 참여한 영광을 드러낸 시는 다음의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시는 判典校寺事로 공민왕을 시종하여 응제 시회에 참여한 成士達의 시이다.

33) 李衍, 『新繪東國輿地勝覽』 卷15, <淸州牧>, 「拱北樓」, 483면.

歲暮將盡際	한 해도 장차 다하여 가고
天氣稍寒初	날씨도 점점 쌀쌀해지네.
扈輦登華樓	임금님을 모시고 누대에 올라
濡毫和舊書	붓을 적시어 옛글에 화답하노라.
秋深蓮萼謝	가을이 깊어 연꽃은 떨어져 버렸고
風勁樹陰虛	바람이 거세 나무 그늘도 허전하네.
軒蓋榮光裏	임금 모시는 영광 속에서도
躊躇尚愧子	오히려 부끄러워 망설였네. <sup>34)</sup>

시의 전반부는 공북루 시회의 정황에 대한 설명이다. 공북루 응제 시회는 날씨가 쌀쌀한 늦가을에 개최되었고, 임금인 공민왕이 직접 참석하여 시판으로 걸려있는 권한공의 시에 차운하여 짓도록 명령을 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시의 후반부는 공북루 주변의 풍경과 시회에 참여한 영광에 대한 감회이다. 작자가 공북루에 올라와 보니, 이미 가을이 깊어서 연꽃은 이미 시들어 버리고 단풍도 다 저서 바람소리만 차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모신 시회에 참석한 영광에 작시를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망설이는 작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기실 작자인 성사달은 文才보다는 武才가 출중한 인물로 大護軍을 역임하였고,<sup>35)</sup> 1362년 홍건적의 2차 침입을 물리치고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인 1363년에는 交州道兵馬使가 되어 함경도를 침범한 여진족을 물리치기 위해 출정하기도 하였다.<sup>36)</sup>

이 같은 응제 시회에 참여한 영광을 드러낸 시는 다음의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시는 상대적으로 하급 문신인 執義로 공민왕을 시종하여 응제 시회에 참여한 禹玄寶의 시이다.

34) 李荇,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5, <淸州牧>, 「拱北樓」, 482~483면.

35) 鄭麟趾『高麗史』 卷38, 「世家」, 〈恭愍王 1년〉, “戊子 以大護軍成士達 在政房私受人職四十餘 下獄

36) 鄭麟趾『高麗史』 卷40, 「世家」, 〈恭愍王 13년〉, “女眞三善三介等 寇忽面三撒 王命交州道兵馬 使成士達 發精騎五百往擊之.

此樓幾登陟	이 누대에 몇 사람이나 올랐는가?
臨幸古無初	임금님의 행차 전에 없던 처음 일이네
已用詩爲記	이미 시를 지어 기록했으니
何須史亦書	어찌 굳이 역사에 기록할 필요가 있겠는가?
斷坡當檻豁	끊어진 언덕은 난간 앞에 트이고
疎柳繞簷虛	성근 버들은 처마 둘러 흰하도다
近侍參非分	가까이 모심은 내 분수가 아난데
躋攀且許予	모시고 오르는 데 나를 허여해 주셨네 <sup>37)</sup>

시의 전반부는 공북루 응제 사회에 참여한 영광에 대한 설명이다. 작자는 임금과 함께 누각에 오른 것은 처음의 일이었으며, 이런 역사적인 경사에 참여한 문인이 몇 사람 되지 않은 영광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이어 작자 자신이 종4품의 執義라는 낮은 신분임에도 응제에 참여하여 시를 지었다는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다. 기실 작자인 禹玄寶는 공민왕 4년 과거에 합격한 후 春秋檢閱이 되었고, 공민왕이 안동으로 주필할 때 執義로 시종하였으며, 공북루 응제에 아버지인 禹吉生과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얻었다.

시의 경련은 공북루에 올라와서 바라본 가을날의 공북루 주변의 경치이다. 공북루에서 북쪽으로 바라보니 언덕 너머로는 트여서 한없이 넓어 보이고 길가의 버드나무는 낙엽이 져서 흰하게 보였다. 여기에서 '넓고(豁)', '흰한(虛)' 것은 공민왕으로부터 축망을 받고 있는 자신의 앞길이라는 의미로 읽히기도 한다. 시의 미련은 다시 수련과 같이 공북루 응제에 참여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작자 자신은 나이도 어리고 낮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응제에 허여해 준 것에 대한 무한한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청주 공북루 제영시 가운데 응제에 참여한 영광을 드러낸 시는 주로 원송수 등 주로 원로 대신급의 문신들이었으며, 우현보의 경우는 신분이 낮았으나 공민왕의 특별한 知遇를 받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를 시화한 것이다.

37) 李衍, 『新曾東國輿地勝覽』 卷15, <淸州牧>, 「拱北樓」, 484면.

셋째, 旅路의 所懷를 살펴본다. 공북루에서 집을 떠난 나그네의 신분으로 자신의 所懷를 드러낸 시로 권한공, 정추, 성석린, 이현조 등의 시가 있다. 다음의 시는 최초의 청주 공북루 제영시인 권한공의 「拱北樓」 시이다.

拱北樓新構	공북루를 새로 지은 건
庚申十月初	경신년 10월 초
詩從權贊善	시는 권 찬선으로부터이고
功自尹尙書	공은 윤 상서부터로다
古道依紅樹	옛길엔 단풍나무 우거졌고
清池倒碧虛	맑은 못엔 푸른 하늘 거꾸러졌네.
留連日將暮	머물자니 해가 지려는데
山色政愁予	산 빛이 바로 나를 시름케 하누나. <sup>38)</sup>

이 시의 작자인 권한공은 元에 의해 강제로 폐위 당하고 아들인 충숙왕에게 왕위를 물려준 충선왕의 최측근 인물이었다. 이 시는 작자가 폐위된 충선왕이 국정을 간섭하자 충숙왕과 사이가 벌어지면서 부왕의 측근들을 축출할 때, 이에 연루되어 양광도[충청도]로 유배를 당했을 때 지은 시이다.

시의 전반부는 청주 공북루의 축조 유래와 최초의 제영시를 지은 사람이 작자 자신임을 밝히고 있다. 시의 후반부는 작자가 청주 공북루에 올라와서 바라본 주변의 경치와 자신의 所懷이다.

작자가 청주에 와서 공북루에 오른 것은 공무나 개인적인 여행을 와서 오른 것이 아니고 정치적 갈등에 따른 流配로 인한 것이었다. 기실 작자는 충선왕의 총애를 받은 최측근으로 원나라에 의해 충선왕이 왕위에서 퇴출되고, 그의 아들인 충숙왕이 왕위에 오르자, 찬성사로 전임되어 서적의 교열 등을 보는 한직으로 밀렸다. 이후에도 충선왕이 퇴위 당하여 원나라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국내 정치에 끊임없이 간섭하자 이에 충숙왕과 틈이 생겼다. 이에 충숙왕은 부왕인 충선왕의 최측근이었던 작자를 1321년

38) 白文寶, 『淡庵逸集』, 한국문집총간 3, 3~4면; 李荇,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5, 482면, <清州牧>, 「拱北樓」.

양광도[충청도] 島嶼로 유배를 보냈으나, 그는 섬으로 들어가지 않고 양광도 일대를 떠돌다가 1322년 충숙왕이 폐위를 당하자 다시 중앙 정계에 복귀하였다.<sup>39)</sup>

시의 미련은 작자가 정치적 패배로 인한 유배자의 신세로 청주 공북루에 올라 느낀 소회이다. 공북루에서 바라본 청주의 경치는 단풍이 든 가을이라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나 지는 해와 가을 산 빛이 작자를 수심지게 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는 해'는 단순히 '저녁 해'가 아니고 작자인 권한공이 충심으로 섬겼던 '충선왕'으로 비유되고, '가을 산 빛'은 단순히 가을의 풍경이 아닌 작자가 느끼는 '자신의 신세'로 읽힌다.

이처럼 청주 공북루에 올라 나그네의 소회를 드러낸 시는 다음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시는 고려 후기의 문신인 鄭樞(1333~1382)의 「組甲 用權一齋淸州拱北樓韻」 시이다.

組甲攻城後	군대가 도성을 공략한 후에
鑾輿返旆初	임금의 수레가 처음으로 돌아왔네.
風塵三尺劍	어지러운 세상 삼척의 칼로 평정하고
歲月五車書	세월은 다섯 수레의 책으로 쌓여 있네.
寒日低荒野	차가운 해는 거친 들에 내려앉고
孤雲度大虛	외로운 구름은 허공을 넘어가네.
吾謀適不用	나의 계책이 마땅히 쓰이지 않으니
腹豈負於予	속마음이 어찌 나에게 저버리겠는가? <sup>40)</sup>

시의 전반부는 1362년 홍건적의 2차 침입으로 국도인 개성이 함락되었다가 다시 공민왕과 고려의 백성들이 합심하여 개경을 수복한 것에 대한

39) 『高麗史』 卷106, 「列傳」 19, <權漢功>. “權漢功安東人 父頊 官至僉議平理 漢功忠烈朝登第直史館. … 政歸忠宣 漢功以從臣 在忠宣邸 與崔誠之主選法 及王薨 忠宣還國 賜鞶帶 常出入禁闈 召見無時 拜密直副使 驟陞僉議平理. … 初忠宣在元 凡國家事 遙傳旨以行 漢功與誠之·李光逢等 扈從京邸 招權納賄 親戚故舊 濫受朱紫 忠肅頗懷不平 及帝流忠宣于吐蕃 王下漢功·光逢及金廷美·蔡洪哲·裴廷芝于巡軍. … 杖漢功·洪哲·光逢·廷芝流遠島. … 漢功·洪哲·光逢等 不入海島 皆聚洪州界憂民間 不可勝紀.”

40) 鄭樞, 『圓齋先生文稿』, 「組甲 用權一齋淸州拱北樓韻」, 한국문집총간 5, 189면.

기술이다. 시의 후반부는 작자가 공북루에 올라서 토로하는 여로의 所懷이다.

작자인 정추가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 공민왕이 辛旽을 신임하여 정권을 맡기자 이에 간언을 하다가 도리어 큰 고초를 당하였으나, 다행히 李穡의 구원으로 죽음을 면하고 東萊縣丞으로 좌천되어 부임길에 청주에 들러 공북루에 올라서 자신의 심회를 드러낸 것이다.

시의 경련 '寒日'은 '가을날의 해'이지만 이면에는 權奸인 신돈의 속임에 넘어간 '공민왕'의 모습이고, '荒野'는 당시 국권을 전횡했던 권간들에 의해 辛旽로 내몰린 '백성의 모습'이다. 그리고 '孤雲'은 충간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리어 허망하게 쫓겨난 '자신의 신세'이다.

시의 미련은 다시 작자의 처한 정치적 현실과 이에 대한 작자의 신념이다. 작자는 비록 공민왕이 자신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돈을 계속 신임하고 있지만, 국가를 위한 자신의 신념을 저버릴 수 없다고 다짐하고 있다. 기실 이 시의 작자인 鄭樞는 본관이 청주이고 자는 公權이며 호는 圓齋로 1353년(공민왕 2)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左司議大夫를 역임했다. 그는 1366년(공민왕 15) 인척인 李存吾와 함께 辛旽의 죄를 탄핵하다가 도리어 숙청을 당하여 동래현령으로 나갔다가, 1371년(공민왕 20) 신돈이 제거된 후 다시 左諫議大夫로 발탁되었으나 바로 죽었다.<sup>41)</sup> 그래서 史評에 "항상 권간들이 나라의 정치를 좌우하는 것을 미워하고 분개하여 마음에 불평을 가지고 있다가 등창이 나서 죽었다."<sup>42)</sup>라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여로의 소회 가운데 집을 오래 동안 떠나온 나그네로서의 소회를 드러낸 시를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여말 선초의 문신인 成石璘(1338~1423)이 지은 「次清州拱北樓板上韻」 시이다.

41) 『高麗史』 106卷, 「列傳」 19, <權漢功>. "公權初名樞字公權後以字行. 恭愍初 中第 補藝文檢閱 累遷左司議大夫. 十五年與正言李存吾 極言辛旽誤國之罪. 王大怒召公權等 面詰下巡軍命李春富金蘭李穡金達祥等鞫之. … 穡入見王 無怒色 乃知其妄旽黨 必欲殺之. 穡言於春富得免 貶東萊縣丞. … 二十年召還復除左諫議 後以成均大司成授書. 辛旽禍即位拜左代言. 歷簽書密直政堂文學 賜翰林職稱功臣號."

42) 『高麗史』 106卷, 「列傳」 19, <權漢功>. "常疾權奸用事憤惋 不平八年疽發背卒."

授鉞清秋晚	부월을 받든 것은 음력 8월 말이지만
憑欄仲夏初	난간에 기대니 음력 오월 초 같구나.
詩從山綠就	시는 산의 푸른빛으로 이루어지고
筆點露華書	붓은 아름다운 이슬을 적서서 쓰네.
樹州圍靑晝	숲 장막은 밝은 대낮에 빙 둘러 있고
雲峯滿大虛	구름 낀 산봉이 허공에 가득하네.
登臨雖信美	올라와 보니 아름답다는 말 믿을 만하나
愁歎仍仇予	수심과 한탄으로 계속 나를 괴롭히네. <sup>43)</sup>

시의 전반부는 작자가 1388년(우왕 14) 여름 양광도관찰출척사로 양광도 首府인 청주에 부임하여 와서 공북루에 올라 시관으로 걸려 있는 권한공의 시를 보고 작시를 하는 모습이다. 작자 자신이 청주에 부임한 것은 음력 8월말로 가을이지만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한여름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의 후반부는 양광도출척사로 공북루에 올라 바라다 본 청주의 경치와 이에 느끼는 소회이다. 작자가 국도인 개경에서 지방관인 양광도출척사로 내려갈 때, 전송하는 사람들이 청주는 경치가 좋고 물산이 풍부하며 인심이 좋은 곳이라고 말로 위로를 하였다. 작자가 실제로 청주에 와서 보니 경치가 좋다는 말은 믿을 만하였으나 2차에 걸친 홍건적의 침입과 중앙정치의 파행, 權奸들의 농간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었다. 그래서 작자는 지방관의 눈으로 목도한 비참한 현실에 한탄이 나오고 이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무력감에 수심이 일었다. 그래서 작자는 “수심과 한탄으로 계속 나를 괴롭히네.”라고 하며, 자신의 소회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여로의 소회를 드러낸 시는 다음 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시는 조선 후기 강원감사를 역임한 李玄祚(1654~1710)의 「淸州拱北樓」 시이다.

踏遍湖西路	두루두루 호서의 길을 밟으며
來登拱北樓	청주에 와서 공북루에 올랐네.

43) 成石璣, 『獨谷先生集』, 「次淸州拱北樓板上韻」, 한국문집총간 6, 75면.

平原聊極目	평야는 넓어서 끝이 안보이고
長日可忘憂	동짓날 근심을 잊게 하네.
歲暮風霜苦	세밑 서릿바람에 괴로운데
天寒鼓角愁	추운 날씨 고각소리에 수심이 이네.
吾將喚從事	나는 종사관을 불러서
憑作醉鄉遊	그와 함께 취향을 즐기네. <sup>44)</sup>

시의 전반부는 작자가인 이현조가 1694년 갑술환국으로 정권이 바뀌자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갔다가 1695년 봄 淸風郡守로 있는 從兄 李玄錫과 함께 충청도 일대를 유람하다가 속리산에 가기 위해 청주에 들러 공북루에 오른 정황에 대한 설명이다. 작자는 중형과 함께 충청도를 유람하며 집인 한양에서 느끼지 못한 풍광과 청주 공북루에서 바라다 본 드넓은 평야에 매료되어 한 해의 끝자락인 冬至가 되었어도 여로의 고단함이나 귀향에 대한 수심이 相殺되었지만 여전히 나그네 신세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일로 수심이 남아있다.

시의 후반부는 한겨울 세모의 모진 바람과 성문을 닫는 고각소리에 旅愁가 밀려오는 모습이다. 작자는 한해가 저물고 한겨울 모진 바람이 불어 치자 관직에서 떨어진 자신의 신세에 수심이 갑자기 몰려온다. 그래서 작자는 무관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며 여로의 고단함을 달래고 있다.

이처럼, 청주 공북루 제영시 가운데 나그네의 소회를 드러낸 시는 최초의 공북루 제영시인 權漢功의 시를 비롯하여 鄭樞, 成石璘, 李玄祚, 申必淸 등의 시가 있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치적 패배로 인해 유배자 신세나 지방관으로 부임하게 된 불편한 심기 등을 드러냈다.

44) 李玄祚, 『景淵堂先生詩集』, 「淸州拱北樓」, 한국문집총간 168, 411면.

## V. 결론

본고는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인 청주의 문화사적 전통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청주읍성의 북문루였던 공북루의 연혁과 함께 이곳에서 지어진 제영시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제영시는 누정을 매개로 한 당대의 인물들의 교유관계뿐만 아니라 통시적으로 각 정파의 유대관계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사적 자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청주 공북루는 그 연혁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이곳에서 지어진 제영시의 현황은 물론 시세계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였다.

청주는 우리나라 내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곳으로 삼국시대부터 정치·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로서 많은 전통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청주 공북루는 관아와民居를 지키기 위한 읍성의 북쪽의 통문루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간이다. 청주 공북루는 고려 말인 1320년 尹繼宗에 의해 세워졌고, 1465년 이승소가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와서 지은 「過淸州」시를 지어 시관을 걸었으며, 沈彦光이 1524년 충청도 도사로 부임하여 작시를 한 이후에는 이곳에서 지은 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퇴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북루는 1667년 청주목사인 李暹이 중수하였고, 李玄祚가 1695년 이곳에 올라 시를 지었으며, 沈鎬이 1708년 공북루에 올라와 보니 거의 퇴락하였다고 하였고, 申必淸이 이곳에 올라 이승소의 시에 차운하여 시를 지었으며, 李夏坤이 「拱北樓前逢雪在淸州」시를 지은 것으로 보아 18세기 초반까지는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청주 공북루 제영시는 1321년 權漢功에 의해 지어졌고, 이를 신천이 차운하여 지었으며, 1362년 공민왕의 명령으로 白文寶, 元松壽, 李樞, 成士達, 洪彦博, 李岳, 李齊賢, 黃石奇, 柳淑, 金漢龍, 禹吉生, 李岡, 廉興邦, 田祿生, 崔龍, 權鑄, 朴仲美, 金君鼎, 華之元, 禹玄寶, 李靱, 韓昉, 曹繼芳, 許仝, 田得良, 李邦直 등이 응제시를 지었다. 이후 고려말 鄭樞, 成石璘이 권한공의 시를

차운하여 지었고, 조선 초기 韓尙質, 沈彦光이 이곳에서 시를 지었으며, 18세기 초반에는 李玄祚, 申必淸, 沈鎬 등이 작시를 하여 총 37수가 전한다.

청주 공북루 제영시가 청주 공북루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적은 것은 이곳이 강산의 조화를 이루는 두드러진 승경의 공간이 아니었고, 문관이 근무하는 公廨보다는 읍성의 북문으로 통문과 방어의 기능으로만 주로 사용되었으며, 충청도의 首府가 공주였기 때문에 문신들이 주로 공주에 찾아오거나 머물렀기 때문이다.

시세계는 공북루 제영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민왕의 응제시를 중심으로 첫째, 王化의 송찬, 둘째, 參與의 榮光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어 응제시가 아닌 시를 '旅路의 所懷로 묶어서 살펴보았다.

첫째, 왕화의 송찬은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찬양하고 흥건적의 침입을 물리쳐서 나라를 재흥시킨 것이 왕의 덕화라는 것을 칭송한 시로 유숙, 이색, 이방직, 전득량, 김군정, 화지원, 이인, 허전 등의 시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공민왕의 개혁정책의 정당성, 독자성, 혹은 자주성 등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참여의 영광은 응제에 참여한 개인적인 영광을 주된 정서를 드러낸 시로 원송수, 홍언박, 홍사달, 우현보, 이방직, 김한룡 등의 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응제에 참여한 영광과 자신의 재주를 아쉬워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셋째, 여로의 소회는 공북루에서 집을 떠난 나그네의 신분으로 자신의 所懷를 드러낸 시로 최초의 공북루 제영시인 權漢功의 시를 비롯하여 鄭樞, 成石璘, 李玄祚, 申必淸 등의 시이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치적 패배로 인해 유배자 신세나 지방관으로 부임하게 된 불편한 소회 등을 드러냈다.

청주 공북루의 누정 제영시는 청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청주 읍성의 북쪽 통문문였던 공북루의 연혁과 고려 후기 청주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어져서 청주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찾는 일이 심화되었으면 한다.

〈參考 文獻〉

徐居正 외, 『東文選』.

李荇, 『新增東國輿地勝覽』.

鄭麟趾 외, 『高麗史』.

白文寶, 『淡庵逸集』, 한국문집총간 3, 민족문화추진회.

成石璘, 『獨谷先生集』, 한국문집총간 6, 민족문화추진회.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문집총간 113, 민족문화추진회.

申必淸, 『竹軒文集』, 한국역대문집총서 2351, 경인문화사.

沈彦光, 『漁村集』, 한국문집총간 24, 민족문화추진회.

沈鎭, 『樗村先生遺稿』, 한국문집총간 207, 민족문화추진회.

禹孝高, 『鹿峰集』, 한국역대문집총서 2930, 경인문화사.

李承召, 『三灘集』, 한국문집총간 11, 민족문화추진회.

李宜顯, 『陶谷集』, 한국문집총간 464, 민족문화추진회.

李齊賢, 『益齋亂藁』, 한국문집총간 2, 민족문화추진회.

李夏坤, 『頭陀草』, 한국문집총간 191, 민족문화추진회.

李玄祚, 『景淵堂集』, 한국문집총간 168, 민족문화추진회.

田祿生, 『槩隱逸稿』, 한국문집총간 3, 민족문화추진회.

鄭樞, 『圓齋先生文稿』, 한국문집총간 5, 민족문화추진회.

강석근(2017), 「應製詩의 관점에서 살펴본 『帝王韻紀』와 李承休의 역사인식」, 『한국사상과 문화』 제89집, 한국사상문화학회, 75~102면.

민현구(2010), 「淸州 拱北樓 應製詩에 보이는 高麗 恭愍王代 중엽의 文臣官僚群」, 『한국학논총』 제33집, 고려대한국학연구소, 243~277면.

조용호(2011), 「장흥의 樓亭과 樓亭詩의 사회, 문화적 맥락」, 『지방사와 지방문학』 제14집, 역사문화학회, 497~528면.

하정승(2015), 「아은 전녹생의 시문에 나타난 고려 후기 사대부의 면모와 정신」, 『포은학연구』 제20집, 포은학회, 187~227면.

하정승(2017), 「杏村 李崐 시의 작자 고증과 미적 특질」, 『동양한문학연구』 제42집, 동양한문학회, 129~160면.

## Abstract

### *Jeyeong Poetry of Gongbukru Pavilion in Cheongju City*

Lee, Dong-Jae\*

This article is a basic study to understand the cultural and historical traditions of Cheongju, the provincial capital of Chungbuk province, and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contents of Jeyeong poetry written here along with the history of Gongbukru, the Northern Gate Pavilion of the Cheongju government seat fortress.

Gongbukru in Cheongju was founded by Yun Gye-jong in 1320 in the Goryeo, and after Shim Eon-gwang wrote Cha-un poems here in 1524, it seems to have been degraded, as no poems were written. After that, Gongbukru was restored in 1667 by Lee Seom, governor of Cheongju, and it is believed that the poems were written here by Lee Ha-gon et al., and remained until the early 18th century.

The first work of Jeyeong poetry of Gongbukru in Cheongju was written in 1321 by Gwon Han-gong, in 1362 at the order of King Gongmin, 26 works of Eungje-shi (poetry written by order of King) were written by Lee Saek and other 26 civil ministers, and afterwards there are 37 poems written by Jeong Chu, and Seong Seok-rin in the late Goryeo, Han Sang-jil, and Shim Eon-gwang in the early Joseon, and Lee Hyeon-jo et al. in the early 18th century.

Among the contents of the poems, the poetry written by order of King praised the king for reviving the country by defeating the invasion of the Red Turban Bandits, or revealing the personal glory of participating in Eungje, and other poems were about a traveler from political defeat, uncomfortable personal impressions of taking office as a local official, and superb views of Cheongju.

As Jeyeong poetry of Gongbukru Pavilion in Cheongju is valuable as a precious resource for understanding Gongbukru Pavilion history and late Goryeo and the meaning of the historical events that took place in Cheongju, it is hoped that the follow-up research on this will continue to make efforts to more deeply understand the culture of

---

\* Professor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 leedj@kongju.ac.kr

Cheongju region and find its value.

【Key words】 Cheongju, Gongbukru, Jeyeong poetry, King Gongmin, Poetry written by order of King, Poem written-engraved signboard (詩額)

투고일 : 10월 26일, 심사완료일 : 12월 7일, 게재확정일 : 12월 22일